

지역 소식통

부안군, 휴가철 관광택시 50% 할인 이벤트 실시

부안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의 이동 편의 증진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택시 요금 50%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 이벤트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부안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관광택시를 절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코스별 이용요금은 △3시간 코스 7만원에서 3만 5천원 △5시간 코스 11만원에서 5만 5천원 △6시간 코스 13만원에서 6만 5천원으로 할인된다.

지난 5월 가정의 달과 여행가는 달을 맞아 실시한 관광택시 할인 이벤트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여름 휴가철에도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할인 이벤트를 한 번 더 실시한다.

관광택시는 관광객이 원하는 관광지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맞춤형 관광서비스로, 복잡한 교통과 주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7월부터 운행 대수를 기존 5대에서 7대로 확대 운영해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교육지원청, 5세 이음 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문형심)에서는 지난 25일 연수실에서 관내 공·사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5세 이음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높여 5세 유아의 정서적 적응과 배움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강사로 이음교육 선도교사로서 실천한 현장 중심의 실제 운영 사례와 구체적인 가이드를 공유해 교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내달부터 바우처 택시 운행

## 총 35대 운영·도내 바우처택시 시범 지역 중 최초... 대기시간 획기적 단축 기대

정읍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비휠체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택시 35대를 도내 시범 지역 중 가장 먼저 도입해 운영을 시작한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 영업을 하다가 임산부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호출이 접수되면 우선 배차하는 서비스다. 올해 시범 운영 대상인 4개 시·군(정읍, 군산, 김제, 고창) 가운데 정읍이 가장 먼저 시행에 나선다.

시는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20대였던 계획을 대폭 수정해 총 35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운행 대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기존 휠체어 전용 특별교통수단에 집중되던 수요가 분산돼 전반적인 배차 효율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도 꼼꼼히 마쳤다.



정읍시가 7월 1일부터 비휠체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택시 35대를 도내 시범 지역 중 가장 먼저 도입해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관내 택시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누고 업무 수탁자 관인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 지난 22일에는 본격적인 운영을 알리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아울러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불친절 방지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해 서비스 질을 높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산 동래구서 고창수박 직거래장터 성료

### 고창 흑수박·블랙보스 수박 등 다양한 농특산물 '큰 호응'

고창군이 지난 25~26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광장에서 열린 '고창수박 직거래장터'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자매결연도시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고창군 대표 농산물인 고창수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 생산자와 농업인 단체가 참여해 고창 흑수박과 블랙보스 수박을 비롯해 다양한 농특산물을 선보였으며, 행사장을 찾은 부산 지역 소비자

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고창수박은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며 고창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창군은 이번 직거래장터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 유통을 활성화하고, 고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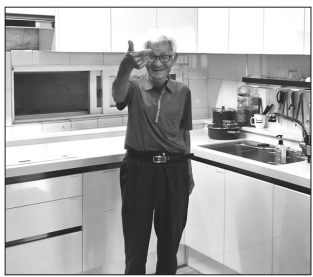
##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새단장... "고맙습니다"

### 정읍시,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총 26구 중... 15가구 집수리 완료

정읍시가 넓고 불편한 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가정을 위해 시작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26가구 가운데 15가구의 내부 보수를 마쳤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가 사는 낡은 집의 내부를 고치거나 편의시설을 설치해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신청을 받아 연령과 가구 유형, 거주 기간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 대상 26가구를 선정했다.

현재까지 15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11가구 공사도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사를 마친 대상자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6·25 참전유공자인 유수봉(95) 어르신은 "나라를 위한 헌신을 잊고 세심하게 살피줘 고맙다"고 말했다.

서 지낼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6·25 참전유공자인 유수봉(95) 어르신은 "쾌적해진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며 "나라를 위한 젊은 날의 헌신을 잊지 않고 세심하게 살피줘 고맙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국가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이성운 국회의원 초청 '군민행복 고창포럼' 성황리 개최

고창군이 26일 오후 고창문화회관에서 고창출신 이성운 국회의원을 초청해 '돌이 아닌 하나 함께 만드는 고창'을 주제로 군민행복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군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화합과 소통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운 국회의원은 "고창의 발전은 어느 한 사람이나 특정 기관의 노력만

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함께 걸어갈 때 발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창 고창에서 성장하며 느꼈던 추억과 경험을 진솔하게 전하며 군민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에서는 지역발전과 화합, 청년의 미래,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군민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한분 한분 인사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심덕섭 군수는 "이번 포럼은 고창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그려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의 가장 큰 힘은 사람이고, 고창의 가장 큰 자산은 서로를 믿고 함께하는 군민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가동

### 생활품 전하며 이웃 안전 확인

정읍시가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읍우체국 소속 집배원들과 함께 취약계층 100세대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우체국 직원이 복지 위기가 의심되는 가정에 생활필수품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거주자의 주거 환경과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뽑혀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먼저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큰 취약계층 100가구를 1차 지원 대상으

로 정했다. 집배원들은 대상자에게 물품을 대면으로 전해주는 과정에서 △우편물이 쌓여 있는지 △건장 상태는 어떠한지 △전기가 수도가 끊기는 등 생활 속 위기 징후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핀다. 업무 중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이웃을 발견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다. 담당 직원이 소통 창구인 '정읍이웃 복지동행'에 신고하거나 점검표를 작성해 시청에 상황을 알린다. 시는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위기 가구를 직접 찾아가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뽑혀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우편물 전하며 이웃 안전 확인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노사 손잡고 폭염·산재 예방...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 개최

정읍시가 노사 합동으로 하반기 위험성 평가와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마련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는 최근, 시 소속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자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 측 위원 9명과 근로자 측 위원 10명을 합쳐 모두 1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하반기 위험성 평가 추진 계획과 올해 폭염에 대비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피었다.

앞서 시는 지난 1분기에 주요 사업장 6곳을 대상으로 노사 합동 순회 점검을 진행했다. 여기서 발견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 29건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이번 위원회에서 공유했다. 아울러 상반기 작업 환경 측정 결과와 근육과 뼈에 생기는 질환, 업무 스트레스를 막기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